

# “ 찾았다! ”

- \* **신앙고백** : 사도신경으로 / 다 같이
- \* **찬 송** : 자유롭게 / 다 같이
- \* **합심기도** : 오늘의 구역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고, 오늘 모인 장소의 가정을 축복해 주소서.
- \* **대표기도** : 지난 주에 예배드린 가정의 가족 중에서 한 분
- \* **성경봉독** : 사무엘상 16장 10~13절 말씀



## ▶ A. 구역공과 ◀

1. 이번 한 주를 돌아볼 때 지난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의 반응·평가·체면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때를 함께 나눠봅시다.
2. **‘들판의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맡겨주신 자리를 감당했습니다. 반대로 **‘왕좌의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평가·체면을 의식했습니다. 나는 요즘 **‘들판의 다윗’**과 **‘왕좌의 사울’** 중 어떤 모습에 가까운지 나눠봅시다.
3.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겉모습(말투·외모·능력)**으로 판단하며 대했는지 아니면 **중심(존재·마음)**을 헤아리며 대했는지 돌아보고 나눠봅시다.
4. 하나님은 사자와 곰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은 다윗의 성실함을 보셨습니다. 지금 내가 도망치고 싶은 **‘사자와 곰’(힘든 상황, 하기 싫은 일)은 무엇인가요?** 그 자리에서 내가 **‘도망’** 대신 **선택해야 할 ‘한 방(성실함)’**은 무엇일지 나눠봅시다.

## ▶ B. 공동체 성경읽기 ◀

레위기를 통해 배우는 **“거룩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백성의 참된 능력”**입니다.

**월요일(레 1~4장)** 레위기 1~4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제사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속죄제는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죄의 문제가 다루어져야 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예배는 가벼운 형식이 아니라 진지한 마음으로 드러져야 함을 알려줍니다.



**화요일(레 5~7장)** 레위기 5~7장은 죄와 허물에 대한 책임,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세를 더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죄는 개인의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와 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덮어두지 않으시지만, 회개하고 나아오는 자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제사는 죄책감을 없애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수요일(레 8~10장)** 레위기 8~10장은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과정과 그 사명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으로 나아갈 때 심각한 결과가 따름을 보여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열심보다 올바른 태도가 먼저임을 가르쳐 줍니다.



**목요일(레 11~13장)** 레위기 11~13장은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규례들은 단순한 위생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 전체가 구별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일상의 먹는 것과 몸의 상태까지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금요일(레 14~15장)** 레위기 14~15장은 부정에서 정결로 회복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상태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정결은 단순히 깨끗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동행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토요일(레 16~18장)**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을 통해 죄 사함의 핵심을 보여주며, 17~18장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죄를 해결할 길을 친히 마련하십니다. 거룩은 예배의 날에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 전체에서 드러나야 함을 가르칩니다.

**주 일(레 19~22장)** 레위기 19~22장은 거룩함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웃 사랑, 공의, 정직함, 약자에 대한 배려가 모두 거룩한 삶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만 거룩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와 일상도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거룩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살아내야 할 부르심입니다.



**\* 성경을 읽고 난 후 각자 느낀 점을 나눕니다.**

**\* 합심기도 :**

1.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는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게추가 기우는 진중한 중심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소서."
2. 하나님이 나를 대해 주신 것처럼 사랑과 인내로 관계를 세워 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3. 더 큰 자리나 다른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지금 내게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 관계와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 찬송 및 헌금 :** 찬송가 420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구역헌금을 드리겠습니다.

**\* 봉헌기도 및 주기도문 :** 드린 예물을 위해 구역장님이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역헌금은 해외선교를 위해 사용되어집니다)